

주제: 감사주일

연사: **Bo Stern-Brady**

**2023년 11월 19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시편 100:4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길. 그런데 왜? 왜 우리는 주말을 통째로 따로 떼어놓고 기념하기 위해 7시간 동안 요리를 하는 걸까요?

감사 설교의 문제점은 그것이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치과의사 사무실에 걸어두는 단지 영감을 주는 포스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명령은 누군가의 고통을 때리기 위한 임시 반창고로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사람의 도움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주차 조언.)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들은 신뢰성이 있나요? 이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습니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의 개념과 감사의 신학을 분리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위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내재된 의미, 힘, 목적의 깊이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우로 목사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에서 두 개의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구타당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참수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감사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우리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펜을 한 번만 쳐서 질문에 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그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큰 화면 참고 사항: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슬라이드를 보관하세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 짧은 구절에는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2-17)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정신 건강/행복에 관한 통계)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 담겨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감사는 나의 모국어인가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감사는 다른 감정을 무효화하는 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도 슬픔을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친구가 하는말은, “나는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감사하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 다른 감정도 묶여 있었습니)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픔은 죄가 아니며 감사가 슬픔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우리의 슬픔을 위한 기쁨의 기름을 약속하고 있으며, 나는 정말로 접촉시 슬픔을 녹이는 기쁨의 산을 갖고 싶습니다. 기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일은 부드러워지고 진정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들은 말살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과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 우리는 감사와 슬픔이 상호 배타적인 감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 수 있고 아주 아름답게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감정 생태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즉 나의 슬픔과 승리와 희망과 마음의 고통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내 마음을 그분의 사랑 주위에 두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과학과 경전은 모두 감사가 우리 삶과 세상에 치유와 희망,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배양할 수 있는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번 주 시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모두 좋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의 마음이 오늘날 이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닿을 것입니다. 시편 65편.

당신은 격렬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두근거리는 파도와 함께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들아

당신의 경이로움에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당신은 기쁨의 함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65:7-8

다윗은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며 만국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명령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의 이 부분은 올해 나의 감사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맹렬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정당과 파벌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총격 사건과 경제 불안의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거센 물소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땅이 여전히 여호와와의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해가 지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끝에서 끝까지, 땅에서 바다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온 땅을 다스리는 광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 위에 놓고 회전시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피할 곳이 없음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거나 평온해 보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험에 처한 보호자이자 동반자로 봅니다.

잠시 멈춰서 의도하십시오. 당신이 직면했거나 직면하고 있는 폭풍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섰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을 돌보고 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풍부하고 비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많습니다.

풍성한 곡물 수확을 제공하며,

당신이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10** 주께서 밭을 비로 적시시고

덩어리를 녹이고 능선을 평평하게 합니다.

년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해

그 풍성한 소출을 축복해 주소서. 시편 **65:9-10**

물.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목마름을 호소하십니다. 다윗이 방금 소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물이라고 묘사한 물은 여기서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란에서 생각을 풀고, 땅이 번성하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로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보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올해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풍성한 수확으로 한 해를 관장하십니다.

험난한 길에도 풍요가 넘친다. 시편 **65:11**

지난 5, 6년 동안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11월과 12월에 매일 이 짧은 구절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는 올해의 왕관을 씩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으로 인봉하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 육체적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파종하는 계절과 수확하는 계절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 합니다. 정서적, 관계적, 영적. 어쩌면 당신은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문제에 대한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는 불가능했던 관계가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기도해 왔던 일이 작은 방식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으로 한 해를 장식합니다. 어떤 해는 표면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것을 큰 선함의 더미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에 이르는 훨씬 더 분명한 길을 갖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올해의 수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올해에 몇 가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그 구절은 또한 "힘든 길에도 풍성함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마차 트랙"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길 =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때때로 이러한 길은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구불구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며 햇빛에 가려진 길들... 심지어 그 길들에도 풍요로움이 똑똑 떨어집니다. (Illus - 어려운 곳에서 오는 선함) B4는 올해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마다 우리 길을 따라오시며 이 방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2023**년부터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생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광야의 초원이 무성한 목초지가 되고,

언덕은 기쁨으로 피어납니다.

초원은 양 떼로 덮여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소리치고 노래합니다! 시편 **65:12-13**

여기에서 다윗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예배하고, 따를 때 가능한 삶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곳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그의 언어는 매우 커집니다. 그는 소리치고 노래하고 꽃이 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고 좋은 삶은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13절로 인도한 길은 거친 바다와 험난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폭풍에서 성공으로 가는 모든 길에도 추수감사절이 심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불안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달래줍니다. 우리의 관점을 희망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더 감사하는 방법:

1. 주의하세요. (“각 사람은 자신이 보고 즐기지 못한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세요. 그 새로운 인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해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일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2. 적의 흥치는 손길로부터 당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은 즉시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거나 과거의 고통을 회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보세요. 당신이 부름받은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이 시간선에서, 이 장소에서...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있는 선함을 보십시오. (예: 비행기 타기).
3. 주다. 이것은 나에게 낙담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일화였습니다. 주다. 관대하게. 시간, 승인, 돈, 격려, 기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헌금에 약간의 돈을 넣어라... 종지기의 통에 약간의 돈을 넣어라. 주다.
4. 인식하십시오: 감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뜻에 이르는 길입니다.

세례로 인도하십시오 - 믿음과 믿음의 표현이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응원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다가올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를 포함합니다.